

축구

6

2019년 8월 5일 월요일

스포츠동아

발렌시아 감독 퇴임 없던일로 이강인 거취 여전히 오리무중



이강인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2019~2020시즌 개막이 다가오지만 이강인(18·발렌시아)의 거취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강인의 이적 관련 소식은 최근 잠잠해졌다. 확실한 건 발렌시아 구단이 이강인의 완전 이적만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점 뿐이다.

이처럼 분위기가 가라앉은 건 발렌시아 구단 내부 사정 때문이다. 지난달 말 구단 고위층 간의 불협화음이 큰 뉴스가 됐다. 구단주가 단장과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소식이 스페인 주요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다행의 원인은 선수 영입 문제로 알려졌다. 단장의 퇴진이 유력해 보였다.

단장의 퇴장과 맞물린 게 감독 교체였다. 일레마니 단장과 마르셀리노 가르시아 토랄 감독은 실과 바늘의 관계다. 알레마니 단장이 2017~2018시즌을 앞두고 마르셀리노 감독을 데려온 까닭에 단장과 감독의 동반 퇴진이 점쳐졌다. 심지어 새로 영입될 감독이 조세 무리뉴(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라는 소식이 파다해지면서 이강인의 거취에도 변수가 생길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구단은 2일 싱가포르에서 수뇌부 회의를 갖고 갈등을 봉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장과 감독의 동반 퇴진도 없던 일이 됐다. 또 다시 이강인의 거취에 변수가 생겼다. 발렌시아 지지자 수페르데포르테는 4일(한국시간) “이강인의 임대나 완전 이적과 관련된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면서도 “잔류할 옵션도 남아 있다”고 전했다. 현재로서는 임대보다는 잔류 쪽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잔류할 경우 구단 방침대로 지난 시즌보다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전망이다. 최현길 기자 choi82@donga.com

이영재 막판 PK 동점골...강원, 전북과 혈투 끝 무승부

1-3→3-3 '강원극장'...10분이면 충분했다

조재완 추격골·이영재 극적 동점골 '더위 먹은' 2위 전북 아쉬운 승점 1



독주는 사라졌다. 최근 수년 간 압도적인 승점몰이로 정상에 쉽게 올랐던 전북 현대는 그 간과 전혀 다른 상황에 직면했다.

2019시즌, 전북은 '추격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쫓기는 자'는 명가재건을 부르짖는 울산 현대. '하나원큐 K리그 2019' 24라운드까지 선두를 지켰다. 울산은 3일 제주 유나이티드 원정에서 5-0 패승을 거뒀다. 앞선 23라운드에서 가장 먼저 승점 50 고지를 돌파했고, 제주를 잡고 16승6무2패(승점 54)를 쌓았다.

4일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강원FC 원정에 임한 전북의 부담이 가중됐다. 제주와 홈에서 2-2로 비겨 승점 49에 머물렀던 전북은 더 이상 간극이 벌어지면 곤란했다. 무조건 승점 3을 쌓고 최소한의 격차를 유지하며 따라붙어야 했다.

상대전적만 보면 전북이 압도했다. 16승1무3패. 최근 10경기를 8승1무1패로 앞섰다. 그런데 이 패배가 올해 3월이다. 올 초 전북 지휘봉을 잡은 조세 모라이스 감독에게도 대단한 충격이었다. 5월 두 번째 승부도 치열했다. 3-2 전북의 승리로 끝났으나 강원 역시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줬다.

세 번째 승부를 기다리던 모라이스 감독



강원FC 이영재가 4일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벌어진 '하나원큐 K리그 2019' 전북 현대와의 홈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 페널티킥으로 극적인 동점을 이뤄낸 뒤 환호하고 있다. 1-3로 뒤지던 강원은 경기 막바지 10분간 2골을 몰아치는 뒷심을 발휘했다. 춘천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독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중앙 수비가 전·후방을 오르내리며 포백과 스리백을 오가고 워 포워드가 안으로 좁히는 움직임이 인상적”이라며 ‘병수 불’로 명명된 강원 김병수 감독의 팔색조 전술을 경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초반 흐름은 전북이 주도했다. 전반 3분 상대 실수를 틈타 오른쪽 측면을 파고든 문선민의 패스를 임선영이 골 망을 갈라 리드를 잡았다.

이런 실점에 강원이 깨어났다. 서서히 찬스를 엿보던 강원은 전반 38분 정조국의 슈팅이 골네트를 출렁였지만 직전 강지훈의 패스 장면에서 오프사이드를 범한

게 VAR(비디오판독)로 포착돼 무산됐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전반 추가시간 이영재의 낮은 크로스를 정조국이 골로 연결해 균형을 맞췄다.

후반 들어 전북이 다시 반격했다. 문선민의 빠른 침투로 강원 진영을 흔들며 리드를 뒀고, 선수교체가 많아지며 흐름이 어수선해진 후반 26분 문선민이 윤석영의 패스와 VAR로 얻은 페널티킥(PK)을 ‘신입 용병’ 호사가 차 넣었다. 호사는 후반 37분 상대 압박이 살짝 풀린 틈을 타 과감한 중거리 슈팅으로 썩기 골을 뽑았다. 3-1 리드, 전북의 승리는 눈앞에 다가온 듯 했다.

그러나 강원의 뒷심이 또 한번 힘을 발휘했다.

후반 45분 조재완이 2-3으로 따라붙는 추격골을 터뜨린 뒤 경기 종료직전 이영재가 드라마 같은 PK골로 3-3 극적인 동점을 만들었다. 망연자실한 모라이스 감독은 벤치를 한참동안이나 떠나지 못하며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1-3으로 뒤졌던 강원은 결국 3-3 동점을 만들며 1승 못지않은 값진 무승부를 챙겼다. 6월 23일 포항 스틸러스전에서 0-4로 뒤지다 5-4로 뒤집는 ‘기적’을 연출했던 강원의 뒷심이 이번엔 전북을 거뒀다. 춘천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열아홉살 이수빈 '데뷔골+도움'...포항 구했다

전반 수원 골망 가른 중거리포 후반엔 그림같은 패스 첫 도움

“쉬게 해주고 싶어도 대신 투입할 선수가 없어요.”

포항 스틸러스 김기동 감독은 4일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 2019' 수원 삼성 원정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다. 김 감독이 언급한 선수는 2000년생 신예 이수빈(19). 이제 갓 K리그 1 무대로

데뷔한 새내기지만, 그라운드에서 매번 알트란 활약을 펼쳐 “빼고 싶어도 뺄 수가 없다”며 흡족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이수빈은 올 시즌 해성처럼 등장한 신인 미드필더다. 개막 전까지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데뷔전이었던 3월 17일 경남FC전에서 가능성을 보였고, 이내 주축으로 중용되면서 존재감을 높였다.

어느덧 18경기째를 소화한 이수빈은 수원전 역시 중원 왼쪽을 책임지는 미드필더로 나와 전방을 누볐다. 장기인 패스를 활



이수빈

용해 공격 기회를 만들었고, 양성현 활동량으로 상대 수비진을 흔들었다. 그리고 0-0으로 팽팽히 맞서던 전반 추가시간, 완델손의 패스를 받아 과감한 오른발 중거리포로 수원 골망을 갈랐다. 자신의 K리그

데뷔골이 터지는 순간이었다.

이수빈의 활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후반 12분 그림 같은 침투 패스로 추가골을 도왔다. 전방으로 뛰어가는 완델손을 정확히 포착한 센스가 빛났다. 이수빈의 포물선 패스를 받은 완델손은 수비수 2명을 제친 뒤 왼발로 가볍게 공을 밀어 넣었다. 이 어시스트 역시 이수빈의 데뷔 후 첫 도움이었다.

포항은 신예 이수빈의 맹활약을 앞세워 2-0 승리를 거두고 2연패에서 벗어나면서 9위(승점 29·8승5무1패)를 지켰다.

수원 |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편집 | 김태건 기자 bong82@donga.com

생활속 치유황토방 국내 최초 이동식구들 황토방

고소득, 역량있는 전국 지사장 모집

www.ondol.net

NAVER 안병연 구들평가

천막을 치면 천막 구들방
콘테이너 없으면 콘테이너 구들방
한옥집을 없으면 한옥 구들방
비닐하우스안에도 뜨끈한 온돌방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온돌의 탁월한 효과는 현대에도 잘 활용해야 할 선조들의 뛰어난 지혜입니다. 단순주거개념의 기존황토방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구들황토방은 안병연 구들평가의 대단한 자부심입니다!



친환경의 저렴한 연료비로 군불때는 생활속 진정한 “치유” 구들 황토방

정원, 자투리 공간, 사찰, 암자, 농막, 전원주택, 힐링타운, 펜션, 캠핑장, 요양원 경로당 등등...

무주 캠핑농원 등에서 황토 온돌방 숙박사업 성공적 운영중!

함양 산삼 축제, 산청 한방약초 축제 참가 확정!
창원지사, 남원지사, 김해지사, 임실지사, 안동지사, 정수지사, 영주지사 계약체결!
조달청통에 학교납품, 합천 적중, 진주 동부, 산청 삼장, 고성 이당, 고성 월평, 용인 양지 설치, 산청 방성 설치예정
하동 옥중, 산청 금서, 진주 명석, 함양 행복마을 구들방 시공.
산청 차왕, 산청신안 구들시공 예정
광주, 순천, 영천, 함양, 달성 지사 협의 중!

현시대에 가장 핫한 블루오션 사업으로 고소득도 올리면서 구들의 세계화에 함께할 동반자 초빙중!!

진주 055-754-0027 합천 010-5555-2560 원주 010-8477-2023
완주 010-3653-1916 무주 010-5127-7599 남원 010-3280-0119
창원, 문경, 고성, 김해, 임실, 안동, 정수, 영주(지사 준비중)

개운하게 폭자고, 원적외선 팡팡!! 체온상승효과 지치고 짜든 몸 가뿐하고 가볍게!!

30년 구들장인, 수천건 구들 시공, 한국기네스북 국내최대 구들방 공인인증 중국, 일본, 국내특허 13개 등록, 복잡하고 어려운 전통구들방식을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시공방식 개발

(주)안병연 구들평가 상담문의 055-973-4689

전국지역별 지사 모집중 (판매, 시공일체)

